

올해 3월에 만들어진 「다이나믹」 매거진 중에 저의 투고 내용입니다.

DYNAMIC  
ダイナミック

# DYNAMIC

ダイナミック

창간호 創刊号 | 2024 | 03

일본 선교와 복음 부흥을 위한  
리바이벌 네트워크  
日本宣教と福音のためのリバイバル宣教ネットワーク

양동훈 梁・東勳

Special Theme

DSM Japan  
하나님의 기적같은 스토리와 뉴 미션  
神様の奇跡的ストーリーとニューミッション

김세진 金・世珍

今こそリバイバル  
지금이야말로 리바이벌!

有賀喜一 有賀 喜一 아리가 키이치

특집 特集

CMF(C Music Festival)

창간호 創刊号 No. 1 2024 | 03



dsm  
Japan

定価(本体1,000円+税)

디지털 매거진 링크 ; <https://online.flipbuilder.com/ihmc/bruh/>



# DSM Japan의 시작과 인도하심

## DSM Japanの スタートと導き

### DSM Japan 실행이사 김세진 선교사 実行理事 ダビデ金 宣教師

- DSM Japan 실행이사 (라디오, 회계, 기획)
- Radio Joy DSM Japan 국장·편집장
- 가스펠 가수·프로듀서
- 그레이스 오브 조이 대표
- CFC 협력 선교사 / CTS 라디오 MC
- CTS라디오조이「블레싱재팬」 프로그램 담당 프로듀서
- Blessing Japan 간사이지부 공동대표
  
- DSM Japan 実行理事(ラジオ、会計、企画)
- Radio Joy DSM Japan 局長・編集長
- ゴスペルシンガー・プロデューサー
- グレイソオブジョイ代表
- CFC 協力宣教師 / CTS ラジオ MC
- CTSラジオジョイ「ブlessingジャパン」プログラム担当PD
- Blessing Japan 関西地部共同代表

DSM Japan은 하나님께서 일본선교를 위해 세워 주셨고 인도해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여러 단체를 통해서 사역해왔고 일본 선교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선교를 위한 선교 단체 중에 한국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한국의 교회에는 일본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거의 파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선교 단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의 활동 중인 선교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교단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문서 선교나 교단에서 하는 선교 활동 이외의 다양한 선교 패러다임으로 사역 하는 단체는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DSM Japan의 사역이 가슴 뛰게 하는 이유는 다방

DSM Japanは神様が日本宣教のために設立させて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確信します。私は韓国からいろんな団体を通じて働きました。そこで日本宣教の準備もしてきました。日本宣教のための宣教団体の中で韓国にはどんな団体があるのか、韓国の教会には日本語礼拝をする教会がどれくらいあるのかほとんど把握をしているほど日本宣教の団体にも大きな関心を持っていました。しかし、日本国内での活動中の宣教団体がどれくらいあるかはあまり知りませんでした。もちろん日本国内で活発に活動する宣教団体があるだろうとは思っていましたが、文書宣教や教団で行う宣教活動以外の様々な宣教パラダイムで働いている団体はあまり見たことがなかったです。そのようなことでDSM



면의, 다양한 선교활동의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저의 선교활동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동역자님들에게도 말씀 전하기를 "일본 내에서 자생된 DSM Japan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동역하며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렇듯 다이나믹하게 일본 선교를 위해 서포트하는 단체인 DSM Japan을 소개합니다.

처음 DSM Japan은 나라(奈良)에 소재하고 있는 카리스차펠(カリスチャペル)시라니와다이(白庭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DSM엔터테인먼트(다음세대 무브먼트)에서 사역하시던 박일권 목사님이 처음 동경에서 문화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간사이쪽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간사이에서의 문화 선교사역을 위해 무라카미 카츠토시(村上勝利) 목사님의 권유로 함께 박일권 목사님과 아내이신 최유정 사모님이 동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전체가 마치 엔터테인먼트의 사역을 위해 최적화된 듯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창립 이사회가 결성되어 DSM Japan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4월에 처음 DSM Japan 리바이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일권 목사님이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사회로서 함께 리바이벌 기도회를 중심으로 모여 앞으로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처음 시작된 마인드로는 선교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DSM Japan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Japan의 미니스트리가胸躍らせる理由は多方面の、多様な宣教活動のセンターの役割をすると期待されるからです。

韓国で私の宣教活動のために祈ってくれているクリスチャンの方々にも分かち合うことで「日本国内で自生されたDSM Japanという宣教団体と一緒に同役して様々な働きをしています～」と言う時、どんなに胸がいっぱいなのかわかりません。このようにダイナミックに日本宣教のためにサポートする

団体であるDSM Japanを紹介します。

最初のDSM Japanは奈良に所在されているカリスチャペル白庭台で始まりました。韓国のDSM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次世代ムーブメントという意味で韓国語の最初の文字から取った名前)で働いたパク・イルグオン牧師が初めて東京で文化宣教のミニストリーをされて、あるきっかけで関西の方に移ることになりました。関西での文化宣教のミニストリー



# DSM Japan Start and guidance



구성된 이사회 회원을 중심으로 그와 연결된 기독교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동원하였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찬양 사역을 통해 일본 교회에서 콘서트와 전도 이벤트 등 일본 선교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 아티스트들을 모으고 그 아티스트들이 리바이벌 기도회에서도 함께 비전과 선교의 마음을 나누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DSM Japan의 협력

아티스트들을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아티스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DSM Japan의 협력 교회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협력교회와 협력 아티스트들이 서로 연결 되어 다양한 전도 활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참하는 동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DSM Japan이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협력 교회는 많지 않지만, 부디 많은 관심과

のために村上勝利牧師の勧めで一緒にパク・イルグオン牧師と奥さんであるチェ・ユジョン宣教師が同役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当時、私が教会に行った時、教会全体がまるで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働きのために最適化されたようでした。そのために2018年からお祈りで準備し、創立理事会が結成され、DSM Japanという名前で2019年4月に初めてDSM Japanリバイバル祈り会が始まりました。その当時はパク・イルグオン牧師が代表としてされ、残りは理事会として共にリバイバル祈り会を中心に集まり、今後のビジョンと進む方向を模索していきました。最初に始まったマインドとしては、宣教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中心のDSM Japanでした。そこで、韓国人と日本人で構成された理事会の会員を中心に、会員とつながっているキリスト教のアーティストたちを最大限

に動員しました。アーティストたちの音楽と賛美の働きを通して日本の教会でコンサートや伝道イベントなど、日本宣教のために用いられるようにするマインドでした。それで最大限に協力アーティストたちを集めて、そのアーティストたちがリバイバル祈り会で一緒にビジョンと宣教の心を分かち合い、そのために一緒に祈りながらサポート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それでDSM Japanの協力アーティストたちを見ると、日本人と韓国人のアーティストたちがいるわけなんです。

また、そのような働きのためにはDSM Japanの協力教会を募集することでした。協力教会と協力アーティストたちが互いに連結され、多様な伝道活動に協力できるようにし、参加と同時にお互いに役に立つ橋の役割をDSM Japanがしようとしたものでした。現在、協力教会



협력으로 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던 중 2020년에는 코로나로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 서 많은 모임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DSM Japan 리바이벌 기도회 도 여러번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보다 더 큰 위기는 DSM Japan의 대표를 맡고 있던 박일권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결정한 일이라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일권 목사님은 대표를 내려놓 고 이사로 전환하면서 한국에서도 DSM Japan의 사역 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단체를 책임 질 대표로서

현재의 양동훈 목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박일권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잠시 어려 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단체 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많은 노력 중에 대표가 되신 양동훈 목사님이 손수 맛있는 한국요리를 해주 시면서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は多くありませんが、どうか多くの関心と協力で教会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そんな中、2020年にはコロナでパンデミック事態が発生し、多くの集まりが縮小され、取り消しになる状況となりました。そのような状況の中、DSM Japan/リバイバル祈り会も何度もキャンセルになりました。しかし、コロナよりも大きな危機は、DSM Japanの代表を務めていたパク・イルグオン牧師が韓国に帰国することでした。いろんなことの中で祈りながら決めたことなので止めることもできない状況でした。パク・イルグオン牧師は代表を置いて理事に転換し、韓国でもDSM Japanの働きを引き続き助けることにしました。続いて団体を責任を負う代表として、現在のヤン・ドンファン牧師が務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パク・イ

ルグオン牧師の空席を埋めるためにしばらく困難もありましたが、神様が建てた宣教団体なので、神様が再び立ち上げてくださいました。多くの努力の中で代表になったヤン・ドンファン牧師が、手作りでおいしい韓国料理も作ってくださって、参加する方々の心を慰めてくださいました。多くの理事、牧師の協力と祈りでこのミニストリー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翌年の2021年には新しいビジョンとしてアプリラジオ放送を開局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次のチャプターで、ラジオ放送についてもっと具体的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それもまた、奇跡のような神様のお導きでなければ実現できなかったことです。

現在のダイナミックサポートミッションジャパンという名前が変更されたのも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は

여러 이사 목사님들의 협력과 기도로 계속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새로운 비전으로서 어플라디오방송을 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라디오 방송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현재의 다이나믹 서포트 미션 재팬이라는 이름이 변경된 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 DSM Japan의 이름의 약자는 Disciple Savior Messenger Japan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확 오는 느낌이 없던 그 이름은 창립자이신 박일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박일권 목사가 지은 것이 아닌

다른 분이 지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당시에는 생각이 되었으나 항상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왜 DSM Japan이냐고 물어오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 양동훈 목사님과 저는 DSM Japan의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음이 일치하여 2023년부터 이름의 내용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Dynamic Support Mission Japan으로서 앞으로 DSM Japan의 사역은 일본 교회를 살리고 선교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펜데믹의 기간



じめてのDSM Japanの名前の略字は「Disciple Savior Messenger Japan」という名前でした。何かピンと来ない感じの名前は創業者であるパク・イルグオン牧師が教えてくれたものでした。それもパク・イルグオン牧師が作ったものではなく、他の方が付けてくださったものだそうです。とにかく名前が重要ではないと当時は思っていたのですが、いつも気になっていました。なぜなら、新しく来る人がなぜDSM Japanなのかと聞かれると、何か説明しにくい部分だったからです。そんな中、代表のヤン・ドンファン牧師と私はDSM Japanの働きにおいて、これから計画とミニストリーについて話をしていたところ、心が一致して2023年から名前の内容を変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Dynamic Support Mission Japan」としてこれからDSM Japanの働きは日本の教会を生かして宣教的に

# VISION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일이라 함은 양동훈 목사님이 언젠가 더 구체적으로 Dynamic 매거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간증하실 날이 오리라 믿고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 경에 하나님께서 양동훈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어머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그냥 희망사항이겠지, 일본식 표현하면 "헤에~?!"하며 눈을 크게 뜰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동훈 목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을 진행 시켰습니다. 그 일로 곧 오사카 카미지에 5층짜리 교회를 구입 하여 카리스챤펠 카미지를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양동훈 목사님이 그 비전을 나누실 때에 비록 목사인 저도 "헤에~?!"하며 믿음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サポートできる多様なミニストリーをしていくという意味を持ったのです。

これらのストーリーを理解するには、まずその背景に関する説明が必要です。それはコロナパンデミックの期間中にあったことです。そのことは、ヤン・ドンファン牧師がいつかより具体的にDynamicマガジンを通して具体的に証する日が来ると信じて簡略に言及したいと思います。2020年の秋頃に神様がヤン・ドンファン牧師に与えてくださったビジョンがありました。それは新しい教会を建てることでした。しかし、その規模はとてつもないものでした。周りの人たちは現実的に不可能だろうからと、ただ希望事項だろうと、日本式に表現すると「へえ~?！」と目を大きくするほどのものでした。しかし、ヤン・ドンファン牧師は信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안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제가 믿음의 사람 양동훈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역을 같이 동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사카 카미지에서 2021년부터 저는 양동훈 목사님과 함께 매주 찬양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멤버가 바뀌어 가기도 했고, 집회 이름도 바꾸어 가면서



で宣言し、働きを進めました。そのことで、すぐに大阪神路に5階建ての教会を購入して、カリスチャペル神路を建て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初めてヤン・ドンファン牧師がそのビジョンを分かち合った時、牧師である私も「へえ~?！」と、信仰の弱い考えを持っていました。しかし、神様のなさることならできない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こで私が強い信仰の人であるヤン・ドンファン牧師と共に、今まで様々なミニストリーを一緒に同行せざる得なくなったのです。



찬양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라디오조이 DSM Japan의 개국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미지에서 가스펠교실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어린이 캠프와 찬양 캠프 등 개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선교 활동이며 더 나아가 일본의 교회를 살리고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사역의 이름을 DSM Japan의 사역으로서 일원화하여 202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세워진 카리스차펠 카미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현재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놀랍게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DSM Japan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 합니다. 이 또한 동역자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에 하나된 마음, 하나된 비전, 하나된 사역을 이룰 때 일본선교가 DSM Japan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동참 방법은 Dynamic 매거진의 서포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参加方法は、Dynamicマガジンのサポート部分を参考に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大阪神路で2021年から私はヤン・ドンファン牧師と一緒に毎週賛美集会を行っています。賛美チームのメンバーが変わっていくこともあり、集会の名前も変えながら賛美集会を通して神様に賛美を捧げていました。そして、その年、ラジオジョイDSM Japanの開局も始まりました。そして、神路でゴスペル教室も開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他にも一緒に子供キャンプや賛美キャンプなどの開催をしました。これらすべてがすなわち宣教活動であり、ひいては日本の教会を生かしてサポートできることでした。そして、そのすべての働きの名前をDSM Japanの働きとして一元化し、2023年から進んでいます。

奇跡のように建てられたカリスチャペル神路も神様が成し遂げ、現在も成し遂げられており、これからも驚くほど成し遂げられると思います。さらに、DSM Japanもそのように用いられると確信しています。これもまた、働き人たちの心を聖霊の中で一つにしたのだから、なんと美しいことでしょう!これに一つになった心、一つになったビジョン、一つになったミニストリー、一つ一つとして日本宣教がDSM Japanを通して驚くほど実現されると信じます。そういう奇跡が当たり前のことになっていくと信じています。

皆さんも多くの関心と参加をお願いします。

## 하나님의 기적같은 스토리와 뉴 미션

실행이사 김세진 선교사

実行理事 ダビデ金 宣教師

2021년 5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Radio Joy DSM Japan의 발족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서 일본에도 하나의 기독교 방송국이 더 생기게 된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Radio Joy DSM Japan의 방송 국장이자 편집 국장인 저는 2014년 3월, 일본 교토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파송되기 전, 한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에 초대되어 선교의 소명등 비전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은 어플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참 한국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되었고,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한창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물결에 발 맞춰 한국의 CTS 기독교 방송국의 프로젝트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CTS라디오조이」를 2013년 3월에 개국한 것입니다. 그 CTS 라디오 조이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담당 PD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PD는 CTS가 계속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신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일본으로 가는 저에게 그 PD가 일본 현지에서도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각 나라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 선교 현장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021年5月、いよいよ夢に描いたRadio Joy DSM Japanの発足式が行われる日でした。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ケーションのキリスト教ラジオ放送として、日本にももう一つのキリスト教の放送局ができた意義深い日でした。

Radio Joy DSM Japanの放送局長で編集局長である私は2014年3月、日本の京都に宣教師として派遣されました。派遣される前、あるラジオ局のインタビューに招待され、宣教の召命などビジョンを分かち合う機会がありました。そのラジオ放送はアプリラジオ放送でした。当時は韓国に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いない人がいないほど普及し、多様なコンテンツ事業も盛んに成長していた時期でした。そうした波に足並みをそろえて韓国のCTSキリスト教の放送局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ケーションを通じたインターネットラジオ放送「CTSラジオジョイ」を2013年3月に開局したのです。私はそのCTSラジオジョイ放送のある番組でインタビューを終えて担当PDと話をしました。PDは、CTSが引き続きラジオプログラムを新設していると言いました。もうすぐ日本に行く私に、そのPDが日本現地でも生々しい宣教現場で放送をすれば良いと提案しました。ちょうど各国ごとに宣教師たちを通してその国の宣教現場を放送するプログラムが一つ二つとできていた時で

## 神様の奇跡的ストーリーとニューミッション



마침 저는 음악 편집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현지에서 라디오 편집 작업을 하기에 어렵지 않아 쉽게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선교사로 파송된지 얼마 되지않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느라 매주 바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처음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몇년간은 언어 훈련 이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지루한 시기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 파송된지 한달도 안되어 일본어 공부 뿐만 아니라 선교 방송까지 진행하느라 오히려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디오 방송인으로서 훈련 받은지 7년만에 결국 일본 선교 라디오 방송국인 「Radio Joy DSM Japan」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처음 「CTS라디오조이」를 만나고나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눈이 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라고 하면 당시 주파수를 통하여서만 들을 수 있었고, 전파가 닿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제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방송도 있었으나 컴퓨터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바닥 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프로그

ram을 듣고 싶은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ちょうど私は音楽の編集やコンピュータープログラムに知識と経験があり、現地でラジオの編集作業をするのに難しくないため、簡単に提案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日本宣教師として派遣されたばかりで、ラジオ放送の進行で毎週忙しくなりました。ある宣教師さんは初めて日本に宣教師として来て何年間には言語訓練以外に時間がたくさん残って退屈な時期を送った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しかし、私は日本に派遣されて一ヶ月も経たずに日本語勉強だけでなく宣教放送まで進行するためにむしろ忙しい日々を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ように私はラジオ放送人として訓練を受けて7年ぶりに結局、日本宣教ラジオ放送局である「Radio Joy DSM Japan」のために神様が用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

初めて「CTSラジオジョイ」に出会ってから私は新しい宣教パラダイムの目が開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ラジオといえば、当時、周波数でしか聞くことができず、電波が届かないと聞くことができない限られたシステムでした。当時、インターネット放送もありましたが、パソコンがないと聞けないというデメリットもありました。しかし、世界中の人々が使うスマートフォンで、アプリケーションを通じて手のひらの上でいつでもどこでも24時間ラジオ放送を聴けるのは画期的な

램은 찾아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것도 약 십몇년 전부터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찬양과 말씀도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대부분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보기는 어렵고, 보다보면 이후에 꼭 다른 영상이 끼어 들어 시간을 뺏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의 매력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 은혜로운 시간이 지속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매리트가 있는 사역은 처음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미디어 선교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CTS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의 다양한 지원과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선교를 위해서 DSM Japan이 큰 비전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러한 일본선교를 위한 라디오 어플의 제안도 CTS라디오조이의 국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쯤 각 나라별, 지역별로 라디오 어플을 만들어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도 만들자는 제안을 들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었는데, 처음 드는 비용이 500만원이었으며, 매달 5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 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드는데, 어플일지라도 라디오 방송국 하나를 혼자서 세우는 것과 다른 없는 큰 사역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사역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더욱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거의 없는 일본에 기독교 라디오 어플이 생긴다면 너무 좋고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모든 분들의 긍정적인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ことでした。それだけでなく、自分が聞きたい番組は見つけて聞き直すことができ、他の人にも伝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した。こうして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を通してキリスト教のテレビ放送やラジオ放送が始まったのもおよそ十数年前からでした。

最近はユーチューブを通して世界中の人々が賛美と御言葉も接している時代です。教会もほとんどユーチューブなどを活用して説教を送出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ような映像が良い点もありますが、他の仕事をしながら見るのは難しく、見ているとその後必ず他の映像が入り込んで時間を奪うことが多くあります。しかし、ラジオの魅力は他の仕事をしながらも聞く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24時間の間、賛美と御言葉で、恵みの時間が持続できるという点です。

このようなメリットのある働きは、最初にCTSキリスト教の放送局から始まりました。それが韓国のメディア宣教に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CTSは韓国の最初のキリスト教テレビ局です。この放送局の多様な支援とシステムを持って日本宣教のためにDSM Japanが大きなビジョンで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実はそういう日本宣教のためのラジオアプリの提案もCTSラジオジョイの局長さんから始まりました。5年ほど前、それぞれの国ごと、地域ごとにラジオのアプリを作っていた頃でした。日本にも作ろうという提案を聞きましたが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した。一番の大きい壁は費用でしたが、最初にかかる費用が500万ウォン(約50万円)で、毎月50万ウォン(約5万円)の費用がかかるということでした。ラジオ放送番組一つを進行しながらも、それを維持するのに多くの悩みと時間がかかるのに、アプリであってもラジオ放送局を一人で立てるほどにありえない大きな働きだったのです。しかし、より一層それが必要だという考えは、私が多くの牧師たちと教会の働き人たちに尋ねた結果、より強く確信をしました。このようなことがほとんどない日本にキリスト教ラジオのアプリができれば、とても良いことで大きく使われるだろう

# RADIO JOY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며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SM Japan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양동훈 목사님의 큰 비전을 보며 또한 진행되어져 가는 카리스차펠 카미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드디어 라디오 선교인 Radio Joy DSM Japan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필요한 재정도 없었으나,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었더니, 들으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마음 모아 드린 소중한 헌금들로 모든 재정을 채우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불어 처음 방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집해야 했는데,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 방송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은혜로운 방송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된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필요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청취자가 늘어나고,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 교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감동이 있으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しかし、いくら良くても一人ではできませんでした。ただ、いつか叶うことを願う祈りの課題になり、心だけで持っていました。そんな中、DSM Japanのミニストリーが始まり、また危機が訪れた時、ヤン・ドンフン牧師の大きなビジョンを見て、また進行されていくカリスチャペル神路の奇跡を体験しながら、いよいよラジオ宣教師Radio Joy DSM Japanが奇跡のような神様のお導きで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初めて必要な財政もなかったのですが、方々と共にビジョンを分かち合い、祈り課題を分かち合ったところ、聞いた方々が聖霊の感動を受けて心を集めてあげた大切な献金で、すべての財政が満たされる奇跡が起きたのです。同時に初めて放送に必要なプログラムを募集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それで放送に全く経験がない方々に放送進行を提案したりもしました。それを通して、これまで恵まれた放送が続いています。そのようにすべてのこと一つ一つが神様が成し遂げ、今も導いてくださっています。

「ラジオジョイDSM Japan」は始まって3年目になっています。まだたくさん足りない部分があり、必要な部分もまだたくさんあります。そのためにさらに多くの聴取者が増え、放送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方々と参加教会が増えることを願います。したがって、皆さ



시다면 개인 혹은 교회에서 라디오 전도에 도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직접 뛰어들지 않으실 지라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adio Joy DSM Japan은 두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 일본 교회들의 성장과 더불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상처, 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반인(년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등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어색한 교회 용어와 몰랐던 신앙 생활에 대해 눈과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가서도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조이 DSM Japan은 다양한 기독교의 콘텐츠와 크리스찬 네트워크,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기독교 문화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하나 비전을 세워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んの力が必要です。この文を読んでいる皆様！感動があればぜひ個人、あるいは教会でラジオ伝道に挑戦してください。これを通して皆様と教会が神様の大きな使命を成し遂げ、それだけでなく失われた魂を主に導く道になると確信します。直接、入らないとしても、この働きのためにお祈りと後援してください。Radio Joy DSM Japanには二つのフォーカスがあります。まずは現在の日本の教会の成長と共にクリスチャンの信仰がより大きくなることです。信仰生活をしながら寂しさや傷、凄絶な霊的戦いの中で、この放送を通してすべてが感謝と恵みに変わり、癒されことと勝利を得る通路になるのです。2番目は一般人(ノンクリスチャン)が神様の御言葉を聞く機会となり、それを通して神様と出会い、信仰の人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今も生きて働かされる神様の御言葉と賛美などを通して心の扉が開かれ、ぎこちない教会用語と知らなかった信仰生活に対して目と心が開かれ教会に行ってもより早く定着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です。ラジオジョイDSM Japanは多様なキリスト教のコンテンツとクリスチャンネットワーク、そして、次世代のキリスト教文化の成長のために力を尽くします。そのためには皆様の祈りと協力が必要です。一つ一つビジョンを立てながら、皆様と一緒に分かち合いながら進むことを願っています。



# dsmJapan



가스펠교실  
찬양 집회  
그리고 비전 캠프

실행이사 김세진 선교사

実行理事 タビデ金 宣教師

일본 선교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큰 열매와 성과가 있는 것이 바로 찬양선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있을 때 강의를 통해 들은 말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을 일본 현장에 와서 보니, 일본 교회와 일본 성도들의 반응은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日本の宣教において、魂の救いの大きな実と成果があるのが賛美宣教だという話があります。私が初めて韓国で日本宣教のために訓練を受けていた時、講義を通して聞いた言葉です。ただ知識だけで知っていたことを日本の現場に来てみると、日本の教会と日本の聖徒たちの反応は本当に熱かったです。それだけでなく、私が実際にそれは通して実を結ぶ経験をしたのです。

## 놓칠수 없는 가스펠교실의 은혜

동지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실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함께 공부하던 가스펠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사카에서 가스펠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분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스펠교실에 왔던 일반인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찬양을 통한 영혼 구원의 기쁜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토에서 만난 선배 선교사의 권유로 멋진 고급 웨딩채플에서 매주일 저녁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그곳에서

## 見逃せないゴスペル教室の恵み

同志社大学神学大学院で実践神学を勉強していた時、一緒に勉強していたゴスペルピアニストがいました。その方は大阪でゴスペル教室を運営していました。その方と色々話をした時、その方はどんな喜びよりもゴスペル教室に来たノンクリスチャンの人が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時が言えないほど一番嬉しかったと言いました。

私もそのように賛美を通した魂の救いの嬉しい感激があります。私が日本に宣教師として来たばかりだった時のことです。ある日、京都で会った先輩宣教師の誘いで、素敵な高級ウェディングチャペルへ毎週夕方ごとに行われた礼拝に参加する



## ゴスペル教室 賛美集会 そして ビジョンキャンプ

찬양인도를 하며 예배를 섬기는 파트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목회 아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문화와 종교의 구분이 철저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웨딩채플 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이벤트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예배 자리까지 좀처럼 넘어오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주중에 항상 비어있는 멋진 웨딩채플을 활용해 가스펠 교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멋지게 울리는 장소이기에 가스펠교실을 하기 에는 최적의 장소 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가스펠 교실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는 일본인분들을 총동원해 참여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친구 들을 데려와 하나둘씩 참여 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셨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찬양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신 분을 통해서 또 처음으로 넌크리스천 이 가스펠 교실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ことになりました。まもなく、私はそこで賛美のリーダーをしながら礼拝に仕えるパート牧師として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で初めて牧会らしくはない牧会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私はこんなに立派で素敵な場所で礼拝をすれば必ず人々がたくさん集まってくると期待しました。しかし、その期待はすぐに消えました。日本人には文化と宗教の区分が徹底していることを感じたのです。ウエディングチャペルで開かれるコンサートやイベントには人がたくさん集まりましたが、信仰を語る礼拝の場までなかなか入ることが難しかったのです。そんな中、平日にいつも空いていた素敵なウエディングチャペルを活用して、ゴスペル教室を始めることにしました。マイクがなくても素敵に響く場所だったので、ゴスペル教室をするには最適な場所でした。そのように初めてゴスペル教室を始めながら私が知っている日本人の方々を誘いまして参加できるようにお願いしました。それで何人かの方々と一緒にゴスペル教室を始めながら、さらにその方々が友達を連れてきて、一人二人と参加者が増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中に教会で傷ついて教会を離れた方々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その方が賛美を通して恵みを受け始めました。その方々が賛美を通



분이셨지만 기독교에 대해 마음은 열려있는 분이셨 습니다. 가스펠 교실에서는 항상 기도로 시작 하여 기도 로 끝을 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싫은 표정하 나 하지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에 관심을 갖고, 가스펠교 실이 끝나면 집에서 성경책이 있었다며 성경 책을 내밀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하여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저의 일본 선교에 있어서 처음 세례를 받으신 첫 열매 였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가스펠교실에서도 놀라운 복음 전도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동지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시행하는 "하계전도"라는 프로그램 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한달간 일본교회에 가서 실습 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할 기회 가 있 었습니다. 마침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 코씨가 섬겼던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旭川六条

して心が癒され、回復されて再び教会に出席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に、賛美は人を回復させ、癒す力があります。そのように回復された方を通して、また初めてノンクリスチャンの方がゴスペル教室に導かれました。その方は信仰のない方でしたが、キリスト教に対して心は開かれている方でした。ゴスペル教室では、いつも祈りで始まり、祈りで終わります。そんな中でもその方は嫌な顔も一つもせずむしろ福音に関心を持ち、ゴスペル教室が終われば家で聖書を見つけたと言いながら聖書を出して見せました。そうして果たしてその方が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そうでは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その方は私の日本宣教において初めて洗礼を受けた初めての实でした。このように実際に宣教現場で賛美の力がどれほど大きくて驚くべきかを体験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私だけでなく他の地域のゴスペル教室でも驚くべき福音伝道の証しを聞いています。同志社大学神学大学院で行っている「夏季伝道」というプログラムがありましたが、神学生が一ヶ月間、日本の教会に行つて実習をするということでした。私がそれに参加する機会がありました。ちょうど有名なキリスト教作家の三浦綾子さんが仕えた北海道の旭川六条教会というところで一ヶ月間、実習に行ける機会がありました。そこのある聖徒の案内で、その地域で開かれているゴスペル教室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時は私がゴスペル教室を始めたばかりだったので、いろいろ学びたいと思つて見学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そこには約80人ほどがゴスペル教室で熱唱しました。私はその歌声に圧倒されました。とても素敵だったし、とても羨ましかったです。私もいつかこんなにたくさんの人々と一緒に歌える日が来るだろうか..と、座っていました。ところが

教会)라는 곳에서 한달간 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어느 성도분의 안내로 그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펠교실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스펠교실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여러가지 배우고 싶은 마음에 견학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 약 80명 가량 가스펠교실에서 열창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압도 당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처음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이상이 년크리스천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반이상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멋진 웨딩채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한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니, 가스펠교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 의미가 컸습니다. 그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찬양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웨딩채플에서의 목회는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가스펠교실의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가스펠교실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토의 세곳의 교회에서 한주에

後で聞いた話ですが、さらに驚くべきことはそこに初めて参加した人々の半分以上がノンクリスチャンだったのですが、今は反対に半分以上が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素敵なウェディングチャペルで牧会をする時には一人も救われた人がいなかったのですが、ゴスペル教室の賛美を通して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事実は私にとって意味が大きかったです。それは見た目が重要なのではなく、心の深いところで響く賛美の力が魂を生かして救いの道に導くということです。真の賛美には力があります。私は現在ウェディングチャペルでの牧会はしていませんが、ゴスペル教室の働きは今まで続いています。ゴスペル教室で受けた恵みが大きいからです。そして、それを通して神様が魂を救うという確信があるからで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出る前の2019年度には、本当に大きな神様の導きがあり、京都の3つの教会で週に1回、週3回の教室を開きました。それで、約30-40人のメンバーと一緒にゴスペルコンサートを開く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もその年に3回以上のコンサートを開くことが出来ました。そんな中、2020年にコロナの波が襲いかかって、それによってゴスペル教室の働きにも影響が大きかったです。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たとえメンバーは大幅に減りましたが、もう一度賛美の力によって



한번씩 총3번의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으로 약 30~40명의 멤버들과 함께 가스펠 콘서트를 열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해에 3차례 이상 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0년에 코로나의 파도가 덮치고 그 여파로 인해 가스펠교실 사역에도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다시한번 찬양의 능력에 힘입어 치유와 부흥의 날이 올줄 믿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가스펠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가스펠교실이 작년부터 DSM Japan의 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더불어 DSM Japan의 사역 속에서 지금까지 쌓은 가스펠교실의 노하 우와 은혜를 일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오픈하고 교회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스펠교실을 열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스펠교실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이 현실로,

##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찬양집회

저는 소명을 받고 일본 선교사로 올때에 생각보다 큰 비전을 그리면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린 비전이었지만, 선교단체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으로 조금 더 폭넓게 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선교 기도요청을 쓰면서도, 너무 허황된 꿈은 아닌지, 뭔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



癒しとリバイバルの日が来ると信じて、今日まで熱心にゴスペル教室を開いています。

このように今までやってきたゴスペル教室が去年からDSM Japanのミニストーリーに編入されました。加えて、DSM Japanの働きの中で今まで経験したゴスペル教室のノウハウと恵みを日本の教会の成長のためにオープンして教会に支援することを望みます。皆様の教会でもゴスペル教室を開きたい場合は、いつでも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そして、ゴスペル教室を通して賛美の力を経験したい方は、いつでも我がゴスペル教室に訪問してください。

## ビジョンは現実のものになり、 聖霊の油が注がれた賛美集会

私は召命を受けて日本宣教師として来る時に思ったより大きいビジョンを描きながら来ました。もちろん神様がくださった心で描いたビジョンでしたが、宣教団体に総務として働きながら色々な経験と知識で、もう少し幅広く描いたものでした。初めて宣教のために祈りの課題を書きながらも、あまりにも荒唐無稽な夢ではないか、何か自分で勘違い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ほどでした。しかし、祈りながら受けた感動があったので、ビジョンを大きく書いていきました。

当時10年前、いやその前からも韓国ではしばらくカフェブームが起り、教会を建築するときには必ずカフェスペースを入れました。カフェの空間で誰もが来てくつろいで、その空間を通して伝道だけでなく聖徒たちの安息所になるのでした。彼の影響だったのか私が神様から受けたビジョンは日本でもライブカフェを通じた宣教ビジョンもありました。

また賛美を通じた日本宣教の実が多いことを知



っているから贊美集會に対するビジョンも大きく持っていました。私は小学生の時から韓国のオンヌリ教會の敬拝と贊美(Praise & Worship)を通して恵みを受け、贊美を通して神様を経験して献身しました。高校生の時からは教會で贊美リーダーをしてきましたので、贊美は私の人生で欠かせないものだからです。特に日本に来る前に「長野の奇跡」という動画を見ました。日本の若者たちが贊美集會を通じて恵みを受け、イエス様を信じるだけでなく、教會に献身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内容でした。だからこそ私はもっと日本で必ず贊美集會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ビジョンがありました。

## 次世代ビジョンキャンプ

もう一つのビジョンとしては、韓国で当時、青少年連合キャンプが盛んにブームになっていました。青少年連合キャンプを通して多くの子供たちと若者たちが神様の前に両手を上げて贊美し、自分の人生を神様に捧げようとする姿は非常に胸をときめかせました。それを日本で開きたいというビジョンがありました。なぜなら私も青少年の時、キャンプ(修練會)を通じて献身をしたからで

이 있었기에 비전을 크게 써 내려 갔습니다. 당시 10년 전, 아니 그 전부터도 한국에서는 한참 카페 붐이 일면서 교회들이 성전건축을 할때 꼭 카페 공간을 넣었습니다. 카페 공간에서 누구나 와서 편히 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전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이었는지 제가 주님께 받은 비전은 일본에서도 라이브카페를 통한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한 일본 선교의 열매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찬양 집회에 대한 비전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한국의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헌신했으며, 고등학생 때부터는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해오면서 찬양은 저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사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 오기 전에 "나가노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찬양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더 일본에서 꼭 찬양집회를 해야 한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 차세대 비전캠프

또 다른 비전으로는 한국에서 당시 청소년 연합 캠프가 한참 열풍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연합 캠프를 통해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은 항상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에서 열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때 캠프(수련회)를 통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 입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가 됐을 때도 항상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으며, 비전을 갖고 헌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다음 세대 인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전으로서 연합 캠프를 언젠가 꼭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전을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몇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1년째부터 언어 습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5년째는 밀하고.. 등 다해서

す。私が教会の伝道師になった時も、いつも教会の子供たちを連れて連合キャンプに参加しました。その度に子供たちの信仰が熱くなり、ビジョンを持って献身する姿を見てきました。ということで、日本の次世代の子供たちが変化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ビジョンとして、連合キャンプをいつか必ず開くことを願う気持ちでビジョンにしたのです。

そのすべてがすぐにできるわけではなかったもので、何年単位で計画を立ててみました。1年目から言語習得しながら教会に仕えて.. 5年目は何々をして.. などなど合わせで20年計画で立ててみました。それから私が日本に来てもう10年目.. 初めて立てた計画がだんだん忘れられていた時です。私は私を祈りと後援して下さる方々に定期的に祈りレターを書くのですが、ふと初めて神様が下さった心と書き下ろしたビジョンを再び取り出してみました。鳥肌が立ちました。20年分の計画がすでに全部叶われていたのです。もちろんまだ進行中で、まだまだ先は長いものもありました。しかし、心に抱いて祈ったこと、神様がくださった心だと信じてきたことがすでに大部分、叶えられたという事実です。

時々私が立って働いているその場を振り返ればまるで夢のようにとても幸せです。もちろん、オーバーワークで大変疲れている時もありますが、神



20년 계획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에 온지 벌써 10년째,, 처음 세웠던 계획이 점점 잊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저를 기도와 후원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편지를 쓰는 데, 문득 처음 주님이 주셨던 마음과 써내려 갔었던 비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치 계획이 벌써 다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이고 갈길이 먼 것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어왔던 것이 이미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서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면 마치 꿈인양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항상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꿈과 성공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나서가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 카리스차펠 카미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7시에 DSM Japan 찬양집회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카리스차펠 시라니와다이에서 DSM Japan 리바이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3시에 오사카 카미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교토 CFC에서 가스펠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린이, 청소년, 장년 캠프들을 했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DSM Japan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様は私を支えて、守って、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じます。教会でいつも主日学校(CS)の子供たちに神様にあって夢とビジョンを持つように語っています。世の中の夢と成功ではなく、謙遜に神様の夢と神様のビジョンを持つ時、驚くべきことが起こるのです。

このすべては一人で成し遂げ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共にする同役者がいるからこそ可能なことであり、それ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信頼の同志たちが一緒に祈り、心を集める時に建てられ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す。誰かが偉いからではなく、各自が与えられた役割に最善と力を尽くして美しい実を結ぶことです。

今現在、大阪のカリスチャペル神路で毎週木曜日の夜7時にDSM Japanワークショップ賛美集会が捧げられております。そして毎月、カリスチャペル白庭台でDSM Japanリバイバル祈り会が行なっております。また毎週金曜日の午後3時に大阪の神路で、毎週土曜日の午後4時に京都CFCでゴスペル教室が開かれております。そして毎年子供、青少年、大人のキャンプをしており、続けて開催する予定でおります。その他にもDSM Japanにはたくさんの働きがございます。

しかし、まだ助ける手がたくさん必要で、専門的な分野もたくさん必要です。旧約時代から神様にふさわしい従順とふさわしい捧げ物を捧げた時に神様が喜ばれたように、神様の前にふさわしい最高のものを共に作って捧げ、神様を喜ばせることを願います。これを通して日本の多くの魂が神様の臨在を経験し、もっと熱い信仰を持つ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そのためにDSM Japanが立ち上げられました。今からの選択は皆様の役目です。DSM Japanのミニストーリーにご一緒しませんか?一人で持って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과 합당한 제사를 드렸을 때 기쁨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최고의 것을 함께 만들며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DSM Japan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DSM Japan의 사역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 가지고 있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현실로 이루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을 크게 그려가며 부흥의 때를 함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동참이 큰 은혜와 격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디오 사역, 가스펠교실, 주간 찬양집회, 월간 기도회, 비전 캠프 등 모든 DSM Japan의 사역에는 돕는 손길과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십시오.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た神様のビジョンを分かち合って、共に実践してみませんか?神様の中で一緒に夢見て、一緒にビジョンを大きく描き、リバイバルの時を一緒に眺めてみませんか? 皆様の小さな仕えと参加が大きな恵みと励ましになり、美しい実を結ぶ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ラジオの働き、ゴスペル教室、週間ワークショップ賛美集会、月間リバイバル祈り会、ビジョンキャンプなど、すべてのDSM Japanのミニストーリーには助けと協力が必要です。皆様が助けてください。一緒に協力ください。

皆様の美しいご献身とご協力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